

불규칙 활용의 규칙화와 ‘ㅎ’[?]에 대한 인식의 전개와 음운현상의 본질

-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음운론 기술을 중심으로1) -

최 전 승(전북대)

1. 서 론

1.1 이 글에서 글쓴이는 1920년대 후반에서부터 소위 불규칙 활용어간에 대한 당시의 형태주의 표기법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던 ‘ㅎ’[?]에 대한 인식의 출발과, 195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현대국어와 지역방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공식적 음운론 기술에서 자음체계로 점진적으로 편입되는 (형태/기저/추상)음소 /ㅎ/에 대한 관찰의 연구사적 흐름과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문자와 음소로서 ‘ㅎ’[?]에 대한 인식의 지속적인 전개가 해당 음운 현상의 해석에 어떠한 문법 기술적 효과와, 화자들의 언어능력, 언어습득, 그리고 음운변화의 방향 등과 같은 그 본질에 대한 몇 가지의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초래하였는가를 점검하려고 한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새로운 맞춤법 통일을 위한 당시 몇몇 학자들의 시안(김희상 1927; 이탁 1928/1958, 1932; 이극로 1932, 1935, 1936)에서 출발한 옛 문자 ‘ㅎ’의 재사용은 굴절체계에서 나타나는 비자동적 교체를 제거하고 어간의 이형태들을 시각적으로 단일화하여 어휘 형태소의 기본형을 고정시켜 표기하려는 형태주의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한글맞춤법 통일안>의 출현과 더불어 잠정적으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즉,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는 통일안의 원칙에서 ‘ㅎ’은 수용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자와 음소로서 ‘ㅎ’[?]/의 적극적인 사용은 1940년대 후기와 1950년 초반의 북한의 철자법 개혁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다(김종오 1949; 전몽수 1949; 조선어문 연구회 1949). 192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으로 연계되는 이와 같은 ‘ㅎ’의 재인식에 대한 과정과 전개를 연구사의 관점에서 글쓴이는 제1단계로 설정하려고 한다.

부분적으로 1950년대(Martin 1954, 1992)와, 그리고 점진적으로 1970년대에서부터 특히 국어 지역 방언의 음운론적 기술에서부터 음소 /?/의 설정과 그 당위성이 새롭게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김완진 1972; 이익섭 1972, 1992). 여기서 이러한 발달의 추이를 시대적으로 음소 ‘ㅎ’에 대한 인식의 제2단계로 간주한다. 1970년대 이후 ‘ㅎ’와 관련된 음운 현상에 대한 관심의 새로운 인식은 제1단계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와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절연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

1) 본 발표문은 원래 60 여 면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으로 완성 되었다. 하지만 발표회의 성격이나 분량의 문제 등으로 실제 배포되는 발표문은 대폭 축약된 형태로 요약하였다. 지정 토의자에게는 전문이 제공되었다. 발표문 전문이 필요한 분은 (사)제주학회 연구위원회(위원장 : 한창훈)로 연락 바란다.

으로 보인다. 제2단계의 시작을 촉발시킨 당시의 시대정신으로 대체로 고전적인 생성 음운론 이론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음소 /ʔ/ ‘ㅎ’에 대한 인식의 제2단계는 이전 단계와 방법론에서 기본 원칙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굴절체계에 표면적으로 실현되는 비자동적, 불규칙인 이형태들의 교체를 형태음소 또는 기저음소를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공시적 음운규칙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저체계에서는 규칙화하여 자동적 교체로 전환되어 있는 화자들의 언어능력을 반영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시대적으로 개입된 두 단계 간의 인식의 차이가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제1단계에서는 형태주의 표기법의 원리로서 부활시킨 ‘ㅎ’를 일종의 형태음소 또는 기저음소로 추출하여 종성표기에 하나의 받침 문자로 설정하려고 하였다(고영근 1994). 그러나 제2단계에서 시도된 ‘ㅎ’의 등장은 그 방법론과 음운 이론, 그리고 변화하는 음운 현상의 측면에서 제1단계의 그것과 다름과 같은 큰 차이를 보인다(최명욱 1978, 1982, 1985, 1995, 1997, 2004; 배주채 1989/2007; 정인호 1995).

첫째, 표기법과는 전연 관련이 없이 (추상/형태/기저) 음소적 신분으로서 /ㅎ/이 설정된 것이다. 둘째,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 구조 또는 생성 음운론의 기저형 설정과 그것이 표면으로 음성 실현되는 해당 음운 현상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그리하여 표면적으로 동일한 분절음들이 서로 상이한 음운론적 행위를 굴절체계에서 나타낼 때에 이것은 경음화와 관련하여 기저표시에 ‘ㅎ’의 존재를 뜻하는 것이다. 셋째, 현대 국어 방언의 음운론에서 소위 불규칙 활용어간들이 형태와 의미를 1:1로 파악하려는 언어 습득 화자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유추적 수평화(analogical levelling)를 거친 어간의 단일화가 확립되어 간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음소 /ㅎ/와, 이것이 자음어미와 모음어미 앞에서 도출되는 적절한 음운규칙으로 포착하는 원리 이외에는 화자들의 언어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다. 넷째, 그 결과 /ㅎ/를 음소목록으로 첨가하게 되면, 표면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는 추상성의 문제를 감수하는 대신에, 해당 문법 기술의 단순화가 추구될 수 있다(정인호 1995; 임석규 2007).²⁾ 즉, 1970년대 이후의 ‘ㅎ’의 재사용은 순수한 이론적 차원에서 기저음운과 음운규칙을 사용하여 해당 비자동적 교체를 규칙화하고, 음운체계에 후음 계열로 마찰음 ‘ㅎ’와 짝을 형성하는 폐쇄음 ‘ㅎ’를 확립시키는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최근에 이루어진 국어 음운론 기술에서 모든 연구자들이 음소 /ㅎ/와 그 도출 규칙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강희숙 1994; 김옥화 2001). 또한, 음운 분석 이론의 관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도 있어 왔다(이승재 1980; 김경아 1990, 2001; 엄태수 1997; 신승용 2003).³⁾ 글쓴이는 역시 이 글에서 음소로서 /ㅎ/(ʔ)의 설정이 해당 음운 현상을 기술하는 적절한 합리적인

2) 경북 북부지역(문경, 영주, 울진) 방언의 공시 음운론을 대조 기술하면서 임석규(2007)는 3개 지역방언의 자음체계에 음소 /ㅎ/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용언어간의 활용(‘ㄴ’ 불규칙과 ‘ㄷ’ 불규칙)을 이용하여 /ㅎ/의 표면적 존재를 예측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기서 /ㅎ/의 설정이 음운과정의 기술에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 누'째, 눈'노, 눈'나 ← 누ㅎ-(臥),
 (나) 실'꼬, 실'째, 시'르니, 시'러 ← 실ㅎ-(載).

글쓴이는 이 글의 §6.2에서 위와 같은 유형의 기술 방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몇 가지를 논의하면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3) 최근에는 [ʔ]을 /ㅎ/의 한 변이음으로 설정하여, 이것을 /ㅎ/의 음절말 폐쇄음의 실현으로 보려고 한다(백은아 2009). 그렇게 하면, 음운과정을 설명할 때, 추상적인 중간 도출형 *[논는], *[논소]를 설정하지 않아도 설명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반면, 정인호(1995:38), 배주채(1992:192), 그리고 임석규(2004:320)는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이 ‘ㄱ, ㄷ, ㅂ, ㅈ’ 등이 아닌 경우에만 어간말 ‘ㅎ’이 성문 폐쇄음 ‘ㅎ’로 변동한다는 평폐쇄음화 규칙을 설정하려고 한다.

방식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의 전개를 통해서 음소 ‘ㅎ’과 관련된 해당 음운현상들의 역사성과, 언어변화의 합리성, 표면상으로 보이는 음운현상에 대한 非生成的(non-generative) 접근과, 진행되고 있는 음성변화의 방향, 또한 비자동적 교체에 대해서 화자들이 나타내는 적극적인 언어 사용 행위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시된 음소 ‘ㅎ’[ʔ]의 허구성 또는 비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1.2 글쓴이가 이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는 음운 현상의 기술에 등장하는 음소 /ㅎ/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설명 방식으로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에서 취급된 이 음소의 설정과 여기에 부수되는 몇 가지의 음운규칙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되는 글쓴이의 대안적 논의도 해당 음운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또 다른 가설에 불과할 뿐이다. 다양한 음운현상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해석으로 단 한 가지만의 권위 있는 정답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매우 비생산적인 대상인 것이며, 동시에 폐쇄된 역사적 골동품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초창기 미국 구조주의 음운론자 가운데 한 사람인 Yuen-Ren Caho(1934/1968)는 음소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방식에 단 한가지의 유일한 정답, 즉 해결책을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의적인 선택과 결정이 불가피함을 진지하게 논증한 바 있다. 그는 일정한 음운현상과 음성들 가운데 이들을 음소체계로 분석하는 데에는 통상적으로 한 가지 이상의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제안을 한 바 있다(Yuen-Ren Caho 1934/1968:54). 즉, (ㄱ) 음성학적 정확성 또는 음소 영역의 최소성, (ㄴ) 언어 구조 전체의 관점에서 음소체계의 균형성과 간결성, (ㄷ) 음소 목록의 수효에 있어서 극도의 절약, (ㄹ) 토박이 화자들의 직관에 대한 배려, (ㅁ) 어원에 대한 고려, (ㅂ) 음소들 간의 상호 배타성, (ㅇ) 음성부호를 I.P.A로 전환시킬 수 있는 可逆性.

이 글의 제 2장에서 글쓴이는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초반에 걸쳐 새로운 표기법 제정과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과, 그 표기법은 주시경 선생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여 철저하게 형태주의 또는 표의주위 원칙이어야 할 것을 주장하는 일부의 문법학자들이 표기에 ‘ㅎ’ 등과 같은 문자를 부활시켜 사용하는 과정을 김희상(1927)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제3장에서 불규칙 활용 어간을 규칙화하여 표기하려는 노력이 ‘ㅎ’을 포함하여 ‘△, ◇, ♣’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로를 이탁(1928/1958, 1932)과 이극로(1932, 1935, 1936)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방식의 표기문자에 대한 당시 조선어학회의 다른 회원들이 보이는 대체적인 반응도 아울러 여기서 관찰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1940년대 후반 북한의 김두봉이 주도한 급진적인 문자개혁에서 나온 새로운 문자 여섯 가지 가운데 1920년대와 1930년 초반에 이미 소개된 문자 ‘ㅎ’과 ‘△’ 그리고 ‘♣’ 등이 형태주의 표기법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과정과, 그 계보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당시 북한의 학자들이 새 문자로서 설정된 ‘ㅎ’과 ‘△, ♣’ 등에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공시적 음소의 신분으로 분석하게 되는 원리와, 이러한 음운변화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글의 5장에서 글쓴이는 ‘ㅎ’[ʔ]에 대한 인식과 그 전개가 주로 1970년대 초반의 음운 분석에서 새롭게 출발하여 최근의 음운론적 기술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드디어는 일부 음운론 개론 교과서(최명옥 2004)에까지 현대국어의 공시적 음운체계와 음운규칙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

펴보고, 그 타당성을 점검하려고 한다.

글쓴이는 제6장에서 현대국어의 표준어를 포괄하는 중부방언과, 또한 지역방언들에서 ‘ㅇ’이 관여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공시적 음운현상 가운데 특히 ‘ㅅ’ 불규칙과 ‘ㄷ’ 불규칙 용언이 토박이 화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실현시키는 유추에 의한 평준화, 그 결과 일어나는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방식과 그 진행 방향을 관찰하려고 한다. 그 결과, 종래에 제시되었던 음소 /ㅇ/과, 이것을 표면으로 도출시키는 경음화, 모음어미 앞에서 ‘ㅇ’ 탈락, 음절말 위치에서 ‘ㅎ→ㅇ’ 등과 같은 잡다한 인위적인 음운규칙의 설정(배주채 1998; 최명옥 2004)이 국어 음운론의 기술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설정된 (추상/형태/기저) 음소 ‘ㅇ’/?는 해당 음운현상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이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음운문법에 부당한 복잡성을 부가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논증하려고 한다.

2. ‘ㅇ’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표기법으로의 출현 배경 : 金熙祥(1927)의 경우

3. 1920~1930년대 표기법에서 불규칙 활용에 대한 표기의 규칙화 방안

4. 1940년대 후반 북한 <조선어 신철자법>의 형태주의

5. 1970년대 이후 국어 음운론에서 (기저)음소 ‘ㅇ’/?의 재인식과 본질

6. ?에 대한 음운현상의 본질과 용언의 공시적 불규칙성

6.3 ‘ㅅ’ 불규칙 용언에서 유기음화와 경음화의 상보적 분포

국어의 음절말 장애음들이 단어 경계와 자음 앞에서 미파 현상을 보이며, 동기관적 중화를 파생시킨 다음에 중부방언을 포함한 일부의 지역방언에서 부수적인 효과로 경음화와 격음화를 이어서 실현시키고 있는 사실을 이병근(1981:80)이 지적한 바 있다. 음절말 위치에서 미파화된 폐쇄음들이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을 된소리로 바꾸는 경음화는 조음 음성학적으로 쉽게 이해된다. 또 그러한 경음화는 17.8세기로 소급되기 시작하는 점진적인 음운과정으로, 오늘날의 지역방언에서는 일반화되어 나타난다. 그 반면에, 미파음들이 음절말 위치에서 후속 자음어미의 초성에 부가시키는 유기음화는 그러한 조음의 원리와 아울러, 그 유형들도 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오종갑(1997:6-9)은 기원적으로 어간말음 ‘ㅅ’과 ‘ㅈ’에서 유래된 ‘ㅆ’과 ‘ㅊ’ 불규칙 활용 어간들의 지역적 분포와 그 변이형들을 조사하면서, 특히 ‘굽’-(灸)과 ‘붓’-(注)의 어간에 어미 ‘-고’와 연결되면 그 자음어미의 초성이 지역방언에 따라서 각각 경음화와, 격음화로 각각 실현되는 예들을 관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굽’-(灸)과 ‘붓’-(注)의 표면 활용형들과 그 도출 과정이 결과적으로 아래와 같

이 동일한 형식으로 합류하게 되는 현상을 주목하였다.

- (21) ㄱ. /꺾:-+고/→(경음화)꺾:꼬→꺾:꾸→[꺾:꾸],
 /꺾:-+고/→(격음화)꺾:코→꺾:꾸→[꺾:꾸].
 ㄴ. /붓:-+고/→(중화)붓:고→(경음화)붓:꼬→붓:꾸→[부:꾸],
 /붓:-+고/→(중화)붓:고→(격음화)붓:코→붓:꾸→[부:꾸].

글쓴이는 오종갑(1997)에서의 위와 같은 기술 방법이 옳은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미파음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실현되는 유기음화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된다. 전북과 전남의 지역방언에서도 ‘ㅂ’ 불규칙 용언어간의 자음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 ‘ㅂ→ㅎ’으로 전환된 것과 같은 예들이 종래에 관찰된 바 있다.⁴⁾ 전라방언을 중심으로 ‘ㅂ’ 불규칙 용언어간이 보이는 공시적 변화 유형을 검증하면서 정인호(1997)는 ‘ㅂ>ㅎ(ㅎ)’의 변화를 거친 용언어간들의 형성 과정을 어간 단일화라는 의식적인 화자들의 개입을 통해서 규명하려고 하였다. 먼저, 그는 ‘ㅂ’ 불규칙 용언어간의 발음이 자음어미 앞에서 ‘ㅂ>ㅎ’으로 변화된 ‘장-’(作)의 활용 예가 이 방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ㅎ’ 발음 용언을 모형으로 유추변화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는 ‘장-’(作)이 보여주는 활용 형식이 ‘ㅂ>ㅎ’의 변화 방향을 가리키는 일부 ‘ㅂ’ 불규칙 용언어간의 활용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역시 ‘ㅎ’ 발음 용언의 활용을 기준으로 옮겨 간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에 김현(2001)은 불규칙 활용어간에서 뿐만 아니라, 어간발음이 모음이거나 또는 비성문음이었던 용언어간이 ‘ㅎ’ 또는 ‘ㅎ’로 재구조화되어 가는 경향을 관찰하면서, 이러한 현상도 청자 중심에서 이루어진 誤分析의 개입을 고려한 바 있다.⁵⁾ 글쓴이는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첨가되는 ‘ㅎ’에 관한 한, 정인호(1997)과 김현(2001)에서 제시된 가설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

그러나 글쓴이는 위에서 언급된 ‘ㅂ’과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발음에서 관찰되는 ‘ㅂ/ㅂ→ㅎ’(자음어미 앞)과 같은 변화의 원인은 청자에 의한 오분석 또는 재분석이나, 화자들의 어간 단일화를 지향하는 유추 등과 같은 언어 외적 요인에서 찾지 않으려고 한다. 즉, 이들 불규칙 용언이 점진적으로 취하는 표면적인 ‘ㅂ/ㅂ→ㅎ’(자음어미 앞)의 경향은 어간말 ‘ㅂ’과 ‘ㅂ’(>ㅂ)에 자음어미가 연결될 때에 통상적인 경음화 대신에 유기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헌 자료에 반영된 표기 가운데 이와 같은 조건에서 유기음화가 수행된 예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초간/재간본 『교린수지』(1881, 1883)에 경음화 대신 등장하는 유기음화의 예들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 (22) ㄱ. 오늘도 머물 박케 업스오(초간/재간 교린수지 3.37ㄴ),
 문 박케 나와섯습네(초간 교린수지 4.39ㄴ), 문 박케(재간 교린수지 4.39ㄱ),
 년은 인군박케는 못트는 거시라(초간/재간 교린수지 3.37ㄱ),

4) 김옥화(2001)는 전북 부안방언의 음운론을 기술하면서, 이 방언에 등장하는 ‘ㅂ’ 불규칙 교체의 몇 가지 유형 가운데 어간말 ‘ㅎ’로 재구조화를 거친 예들을 제시하였다. 꺾-(飢): 꺾:고ㄴ구어라, 늑-(馱): 늑고ㄴ누어서, 집-(補): 집고ㄴ지어서(집-어서)ㄴ지어(집-어).

5) ‘ㅂ’과 ‘ㅂ’ 불규칙 용언 어간말 자음에서 일어난 ‘ㅂ/ㅂ→ㅎ/ㅎ’의 변화에 대해서 정인호(1997)에서의 “화자 중심의 유추”, 그리고 김현(2001)이 제시한 “청자 중심의 재분석”이라는 해석은 음운변화의 영역을 벗어나서 어간 단일화를 추구하려는 화자와 청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ㄴ. 처분은 당신케 잊습네다(초간/재간 교린수지 4.41ㄴ).
- ㄷ. 장지는 안뻘을 종희로 독겹케 바르웁네(초/재간 교린수지 2.33ㄴ),
- ㄹ. 술로 밥 먹키는 도선만 잊는가 시브외(苗代川本 교린수지 3.11ㄱ),
cf. 수짜락으로 밥 먹키는(초간/재간 교린수지 3.23ㄱ),
- ㅁ. 종들이 잘 테가 업서(處, 초간/재간 교린수지 2.35ㄴ),
- ㅂ. 손목 쥐고 홀케 가읍식(초간/재간 교린수지 1.47ㄱ),
cf. 자네처럼 흐다가는 시비 듯키 쉽사오리(1882.정정 인어대방, 3.6ㄱ).

위의 예들에서 후속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격음화를 촉발시켰다고 생각되는 어간말 자음의 유형은 장애음만 아니라, ㄹ과 비음에까지 분포되어 있다. (22)의 유기음화 예들을 어떻게 수용하여야 될까. 초간본 『교린수지』(1881)에 나타난 (22)의 예들의 표기 형태들이 재간본(1883)에서도 전연 교정되지 않고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다. 글쓴이는 오늘날의 구어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조건에서의 몇 가지 유기음화 현상을 바탕으로, (22)의 예들은 그 당시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발화가 표기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⁶⁾

현대 전북방언의 ‘ㅅ’ 불규칙 용언에서 특히 ‘짓-’(作)은 대부분 ‘짙-’으로 재구조화되었다(소강춘 1983; 최태영 1982). 짓+고→직코→지코. 이러한 ‘짓->짙->짙-’에서의 어간말 ‘ㅎ’의 등장은 19세기 후기에 해당되는 지역방언을 반영하는 자료에서도 관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의 시작과 확대 과정은 방언에 따라서 19세기 후기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다.

(23)ㄱ. 언제 밧바 옷 짓꼇나(판,박.383),

- ㄴ. 양나리 쥬홍스가 호로밤의 이 글을 짓코(99장 필사본 별춘.14ㄱ),⁷⁾
- ㄷ. 농스 짓키 일삼난대(병진본 필사 박홍보.1ㄴ),

6) 본문 (22)에서와 동일한 음성 조건에서 수행된 유기음화의 예는 산발적이지만, 아래와 같은 예들을 제시할 수 있다.
 (ㄱ). 『한글』 제5권1호(1937, 威南 定平지방(1) 방언조사(池鳳旭, pp.16-22)에 (22)ㄴ에 해당되는 방언형이 보고되어 있다.
 께→께: (例: 先生님께→先生님께, p.17),
 (ㄴ). 부안방언의 특수조사를 기술하면서 김옥화(2003:187)는 (22)ㄱ에 해당되는 유형과 동일한 유기음화를 관찰하였다.
 그것배키는 인 비는디, 중학교 배끼 못 덩깁어라우.
 (ㄷ). 제주도 방언의 어미들이 보이는 형태음운론을 고찰한 정승철(1997:77)은 다음과 같은 유기음화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의미적으로 중앙어의 {짚}에 대응되는 제주도 방언의 {으크}는... {으크}가 관형적 구성을 가진 ‘을 거’(“을 것”)에 기원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77쪽).
 (각주 19)→“지들커(뽕감), 먹으컬”(먹을 것을)에서처럼 간혹 격음화의 흔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지들커’는 ‘짙(“때다”)+을 거’로, ‘먹으컬’은 ‘먹+을+거’로 분석되는데, 이들은 격음화를 겪은 형태뿐 아니라, 관형형어미의 탈락까지 겪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ㄹ). 본문의 (22)ㄱ에 해당되는 조건에서 실현된 유기음화도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 드물게 확인된다.
 암만흔들 뽕커시냐(판,적.502).
 cf. 집비들키 우름운다(완판,심청,하.26ㄴ), 쌍거쌍뉘 비들키 갓치(수절가,상.32ㄴ),
 비들기(鳩)→뽕들키(『한글』, 제5권1호, 전북정음 사투리, p.19).

7) 필사본 99장본 「별춘향전이라」는 박순호 소장본으로 『한글필사본 소설자료 총서』 18권에 영인되어 있다. 본문 가운데 “사설이라/진양조라/쥬쥬머리라/쥬뽕머리라/쥬진머리라/쥬타령제라/휘모리라/말노호라” 등과 같은 지시사항이 언급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판소리 창본에 가깝다. 필사본 말미에 “희동조선 절나북도 고부군오금면 각목동 근서, 정스 이월초육 일 등서라”라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여기서 정사년은 1917년에 해당된다고 한다(김진영 외 2000).

흔 돌금은 쳐구리 짓고, 또 흔 돌금은 바지 짓코(상동.6ㄴ),
 시집 짓코 왕토희기(상동.8ㄱ),
 녀구쓰로 집을 짓코(상동.13ㄱ),
 제비 집을 직코(상동.21ㄴ).⁸⁾

- (24) 선흔 사람의 일흠은 선흔게 지코 악흔 사람의 일흠은 악흔게 지코(1894,천로역,서,3ㄴ),
 조흔 싸 일흠은 조케 지코 흥흔 싸 일흠은 흥흔게 지엿스니(천로역,서,3b),
 죄를 지코 디옥에 싸지는 거시 조흔냐(천로역,서,1b).⁹⁾

위의 예들은 오늘날 전북방언에 쓰이고 있는 재구조화된 어간 ‘짙-’의 어간말음은 통상적으로 경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인 ‘진-+고’ 등에서 유기음화가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성 환경에 유기음화가 일어나는 조음 음성학적 근거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19세기 후기의 중부방언을 반영하는 『독립신문』의 표기에서도 어간말 장애음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사의 초성이 유기음화되는 예들도 관찰된다.¹⁰⁾

- (25) ㄱ. 어린 으히들이 부모를 의지^ㅎ덜기 의지^ㅎ고(독립신문, 1896.7.11.①),
 ㄴ. 세도 ^ㅎ던 지상 대접 ^ㅎ덜기 ^ㅎ는거슨(독립.1896.9.8①),
 ㄷ. 아니 지은 죄도 지은^ㅎ키 구축 ^ㅎ여(독립.1898.6.11),
 ㄹ. 본국으로 도라 갈^ㅎ듯키 지^ㅎ니고(독립.1897.10.20.1),
 ㅁ. 남의 일 보^ㅎ듯키 보고 잇^ㅎ시면(독립.1897.8.14),
 ㅂ. 남의 일 보^ㅎ듯키들 ^ㅎ며(독립.1897.8.14).

현대국어 서울말의 구어에서도 유기음화를 수행한 ‘-드키’형이 쓰이고 있는 사실을 보면 위와 같은 유기음화의 표기가 당시의 구어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ㄱ). 그러구 옛날에는 흰떡 허드키 떡을 해서(p.54), (ㄴ), 두부 모 치드키 네모지게 썰어노서 (p.92), (ㄷ). 지사 허드키 그렇게 다 채러^ㅎ쳐(p.63). cf. 전에 우리 지내드끼 그렇게 지내는 집이거든 (p.73),[<뿌리깊은나무 민중자서전> 18, 서울토박이 부인 한상숙의 한평생, 『밥해 먹으면 바느질허라 바느질 아니쁜 빨래허야』 (1992), 편집 목수현. 1918년 서울출생, 구술 당시 1991년 74세).¹¹⁾

8) 이 필사본은 임형택 소장 26장본 「박흥보전」으로 『고전소설선』(형설출판사)에 수록되어 있으며, 『흥보전』(김진영 외 1977)에서 소개되고, 역주되어 있다. 필사 시기는 표지에 적힌 기록(丙辰 9월20일 騰, 김의관 군현택 入納)으로 보아 1856년, 아니면 1916년으로 추정된다.

9) 만해 한용운의 『님의침묵』(1926)의 표기에서도 다음과 같이 ‘짙-’(作)의 활용형이 나타난다.

도포도 지코 자리웃도 지엿습니다, 지치아니한 것은,

지코집혀서 다 지치안는것입니다(134, 수의비밀).

10) 『독립신문』에는 ‘짓-’(作), 낫-((勝), 낫-((戀)에서 어간말음 ‘ㅎ’으로 재구조화된 ‘짙-, 낫-’등이 모음어미 앞에서 ‘ㅎ’이 나타나는 표기 예를 생산적으로 보여준다. 참고로 용례 한 가지씩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ㄱ). ‘지흔’: 처음으로 정동에 새로 지흔 교당을 열고(독립.1897.5.11④),

‘지호며’: 풍류도 만들며 신도 지호며 비도 만들며(독립.1897.2.16①),

(ㄴ). ‘나흔’(勝): 녀편네가 사나회 보다 빅비가 나흔거시(독립.1986.4.21①),

(ㄷ). ‘나홀’(癡,勝): 병원에서 나홀 약을 붓치고 갔다더라(독립.1896.5.14②).

cf. 엿새키에 닉 형용이 곱보단도 나홀테요 표범보단 나홀테요(관.퇴.288),

=엿더키의 닉 형용이 곱보단도 나홀이요 표범보단 나홀이요(완관본 퇴별가, 12ㄱ).

11) 유필재(2001)에서도 서울말의 연결어미 목록 가운데 ‘-드키’형이 등록되어 있다.

6.4 ‘ㄷ’ 불규칙 용언의 규칙화: ‘실코’

지금까지 §6.3에서 살펴본 19세기 후기 다양한 방언자료에 나타나는 (22)-(25)에서와 같은 유형의 유기음화 현상이 ‘ㄷ’ 불규칙 용언이 어간말 ‘ㄷ’로 규칙화하는 과정에서도 이 시기에 경음화와 함께 수의적으로 나타난다. 즉,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말 ‘ㄷ’이 화자들이 수행하는 유추적 수평화에 의해서 자음어미 앞에서 ‘ㄷ’을 교체하여 확대되는 경우에 경음화와 더불어 유기음화가 19세기 후기의 자료에도 점진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특히, 19세기 후반 『독립신문』에 ‘ㄷ’ 불규칙 용언 가운데 동사 ‘싣-’(載)의 활용형들이 어간말 ‘ㄷ’로 재구조화된 모습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생산적으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싣-’(載)의 규칙화는 1920.30년대에 이미 중부방언에서도 일반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이 김상희(2007)와 이탁(1928/1958)으로 하여금 ‘ㄷ’ 불규칙 용언 가운데 유독 ‘싣-’의 경우에 한정하여 규칙적인 표기 형태 ‘실-’을 설정하게 한 것 같다.

『독립신문』에서 모음어미 앞에서 ‘싣-’(載)은 세 가지의 이형태들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어간 단일화의 과정이 일률적이지 아니라, 각각 세 가지의 점진적인 진로를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싣-’(載)의 굴절 형태 가운데, 특히 ‘싣-+고’의 연결을 중심으로 관찰하면 이들 3개 이형태의 출현 빈도 수가 상이한 비율로 나타나는 사실이 주목된다. 즉, (ㄱ) ‘실고’ 부류:43회, (ㄴ) ‘실코’ 부류:11회,¹²⁾ (ㄷ) ‘실꼬’ 부류:3회.¹³⁾

- (26) ㄱ. 몸 목에를 실고 능히 걸어 다니는 거시라(독립.1896.11.24),
 슈뢰포 실고 다니는 군함이 수물 세시라(1896.12.1),
 집을 몸에다 실고 다니며(1897.6.19①),
 짐도 실고 다니며 슈레도 실고 다니게 하나니라(189.7.7.1),
 라귀 등에 실고 셔울노 올라 오논(1897.11.11).
- ㄴ. 은시져 두벌을 쇼에 실코(1897.6.8③),
 션긱과 짐을 실코 닷게드면(1897.5.13②),
 물건을 마거로 실코 다니게 하며(1897.1.30.①),
 총세 바리를 실코 동대문으로(1896.5.26③).¹⁴⁾

“비들기들이 고추씨를 우리네 갈비탕 먹드키 먹어요.”(p.221).

- 12) 『독립신문』에는 ‘실코’의 경우에 전설고모음화에 대한 파도교정형 ‘슬코’도 아래와 같이 등장하고 있다.
 슈뢰포 슬코 다니는 비가 이척(독립.1897.1.30.②),
 슈뢰포 슬코 다니는 비가 하나(1897.1.30.②),
 아라샤 사름의 들썩 슬코 가는 물건을(1897.1.14③).
- 13) 19세기 후반의 『독립신문』(1896.4.7-1899.1.7)의 성격과 여기에 반영된 언어 현상도 일반적으로 그 창간에서부터 서재필이 사직하고 떠난 기간(1896.4.7-1898.5.10)과, 윤치호가 그 독립신문을 맡고 폐간될 때(1898.5.17-1899.1.7)까지의 두 시기로 나뉜다. 글쓴이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서재필이 사장 겸 주필로 관여하였던 기간인 1896.4.10-1898.5.10일 사이에 나타난 언어 특질만을 여기에 고려하였다.
- 14) 또한, ‘싣-’(載)에서 재구조화를 거친 이 시기의 ‘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굴절접사 앞에서 어간말음 ‘ㅎ’을 표기상으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ㄱ) 실혀: 그 짐을 화륜계에 실혀 각처에 파송 하기로(독립.1897.5.13②),
 적벽 동전을 실혀 드리는 고로(1898.8.11),
 (ㄴ) 실흠: 팔견 돈썩지 실흠 비들이요(1897.5.13②),
 (ㄷ) 실흔: 해상에 물화 실흔 비들이(1897.4.13.③),
 쇼에 실흔 금 은 락물을(1897.6.8③).

- ㄷ. 털거에 모리를 실꼬(1897.7.8),
 차에다 짐을 만히 실꼬(1896.2.23),
 나무 흔바리를 실꼬(1897.4.24④).
 cf. 무연탄도 풍범선으로 만히 실어다가 파니(1897.9.16),

위의 예들은 원래 ‘싣-’(載)의 활용 형태들에서 어간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단계가 동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즉, 『독립신문』에서 아직 많은 출현 빈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싣-’형이 어간 단일화로의 첫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싣->싣-’ 또는 ‘싣->싣-’로의 자음어미 앞에서 일어난 재구조화는 시간상으로 먼저 ‘싣+고->[싣고]’에서부터 출발하여, 나중에 각각 유기음화 ‘싣+고->[싣꼬]’와 경음화 ‘싣+고->[싣꼬]’와 같은 순서로 전개되어 왔을 것이다. 첫 단계 ‘싣->싣-’에서 이루어진 ‘싣-’의 어간말음 ‘ㄷ’은 ‘싣-’의 활용형 가운데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어간말음이다. 이 위치에서 어간말 ‘ㄷ->ㄷ’의 전환은 어간의 단일화를 추구하는 화자들의 유추적 확대 또는 수평화를 거친 것이다.¹⁵⁾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 자음어미 앞에서 출현하는 ‘싣+고->[싣꼬]’의 유기음화나, ‘싣+고->싣꼬’와 같은 경음화 현상은 화자들이 수행하는 어간 단일화와 관련된 본질적인 영역이 아니다. 그것은 재구조화된 어간말 ‘-ㄷ’음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어미에 부수적으로 실현되는 이차적인 현상일 뿐이다. 문제의 본질은 화자들이 모음어미 앞에서의 어간말음 ‘-ㄷ’을 유추에 의하여 자음어미 앞으로 확대시켜 활용의 규칙화를 시도한 것이다. 여기서 어간말 ‘-ㄷ’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이차적으로 수반되는 유기음화 또는 경음화는 어간의 재구조화는 관련이 없이, 특정한 음성 환경에서 수행되는 하위 음운 현상이다. 그것은 어간말 ‘ㄷ’이 뒤에 연결되는 자음을 유기음화 또는 경음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음성적 특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ㄷ’ 불규칙 용언의 어간 단일화는 이 범주에 속해 있는 모든 활용형들에 시간적 차이를 두고 어휘 확산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온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유추적 확대 또는 수평화에 개입된 시간적인 완급의 차이는 화자들이 구사하는 사용의 빈도수, 또는 친숙도, 음성적 조건 등과 같은 언어 외적 또는 내적 요인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Phillips 2006). 19세기 후반 『독립신문』에 출현하는 ‘ㄷ’ 불규칙 용언 가운데 어간 단일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형태는 ‘걸->걸-’(步)이었다(최전승 2009:218-220).

- (27) 몸이 묵어워 잘 걸지를 못흐나(독립.1897.7.3),
 잘 놀지는 못흐나 걸기는 대단히 썰니 거르며(1897.7.8),
 거름을 지어 걸지 말며(1896.11.14),

무슴 봉물 싣흔 물에 틱와(1898.4.28).
 cf. 짐배에도 다 싣흔 수 업습니다(日本語學, 음-어편, 268).

15) 『독립신문』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중부방언 중심의 다른 성격의 자료들에서도 ‘싣->싣-’(載)로의 규칙화는 보여주지만, 통합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유기음화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ㄱ) 싣다, sil-ta, si-re, si-reun. 載, 『한불초역』(1880:423).
 cf. 걸다, ket-ta, ke-re, ke-reun, 步, marcher(상동, p.149).
 (ㄴ) 술만 먹고 말집 싣기(경관 20장본 흥부전, 5ㄴ),
 cf. 말집 싣기(김문기 소장 26장본, 흥부전. 6ㄱ).

다라나다가 두거름을 걸지 못 햐(1896.8.4②),
 거름은 변변히 못 걸고(1897.7.8),
 거를 때에 쫓쫓시 서서 걸고 두 다리로 걸고(1897.6.24.①),
 다리 업는 사름이 암문 걸고 십허도 걸을 슈가 업시며(1897.8.3).
 cf. 길에 거러 가논이와 타고 가논이가(1896.10.20②).

‘ㄷ’ 불규칙 활용이었던 ‘견-∞걸-’의 비자동적 교체에서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어간말 ‘-ㄷ’로 규칙화를 수행한 이 용언에 통합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은 (26)의 예에서와 같이 아직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화자들에 의한 ‘견->걸-(步)의 재구조화는 ‘신->실-(載)에 수행된 유추적 확대를 거친 변화보다 시간상으로 뒤늦게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신->실-(載)과 같은 어간의 단일화에서 추정하였던 가정과 일치한다. 불규칙 어간말 ‘ㄷ’에서 ‘ㄷ’로의 규칙화가 이루어지는 첫 단계에서는 아직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가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음어미 앞에서 재구조화된 ‘실-’에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이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를 점진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¹⁶⁾ 그렇기 때문에, 위의 (26)의 예에서 ‘신->실-’에 연결된 자음어미의 초성에 일어나는 경음화와 유기음화는 단지 어간말 ‘-ㄷ’과 관련된 개별적인 음운현상일 뿐이고, 해당 어간의 재구조화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는 자음어미 앞에서 수행된 ‘신->실->실-/실-(載)의 확산이 이와 같은 시기의 중부방언의 공시적 단계에서보다 앞서 진행되는 것 같다.¹⁷⁾

- (28) ㄱ. 술을 실코(병오,춘.29ㄱ), 비예 실코(판,심.192), 실코 갖다가(판,박.388),
 뚝피 실코(충열,상.25ㄴ), 지물을 만이 실코(충열,상.20ㄴ),
 말 짐 실키(병진본 필사 박홍보.2ㄴ), 슈리 우의 실코(충열,하.17ㄴ),
 숨신손을 실코 잇셔(판,퇴.276), 숨신손을 실코 잇고(판,심.200),
- ㄴ. 뚝피 실고(심청,하.11ㄱ), 주눅등물을 슬고(삼국 4.29ㄴ),
 슈리 우의 슬고(정사본 조용 3.34ㄴ), 거름 실고(판,변.544),
 쫓슬 건져 비의 슬고(판,심.204),
- ㄷ. 지물을 실꼬(길동.13ㄱ), 잔득 실꼬(판,적.486).

16) ‘ㄷ’ 불규칙용언의 규칙화에 따른 이차적인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의 실현 양상도 지역방언에 따라서 상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 4권 3호(1936:11-15)에 이강수가 전남 함평을 중심으로 조사 보고한 1930년대 함평방언 어휘 가운데 중부방언에서의 ‘ㄷ’ 변칙용언들은 모음어미로 시작되는 어간형태로 단일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ㄱ) 걸다(步)→걸따, 걸고→걸꼬, (ㄴ) 묻다(問)→물따, (ㄷ) 실고(載)→실꼬, 실다→실타.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ㄷ)의 표제어로 어간의 단일화가 이미 완료된 ‘실-고, 실-다’(載)가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그 반면에, 같은 『한글』 5권 1호(1940:17-20, 지봉옥 조사)에 발표된 1940년대 함남 정평방언에는 ‘ㄷ’ 불규칙용언의 규칙화가 이루어진 후에 아직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ㄱ) 걸고(步)→걸구, 걸다→걸따, (ㄴ) 걸다(견다, 編)→절따, (ㄷ) 듣다(聽)→들따.

(ㄷ) 긴다(汲)→질따, 푸따.

17) ‘ㄷ’ 불규칙용언의 어간 단일화로 인한 규칙화 과정 이후에 첨가되는 경음화 및 유기음화 현상의 확대에 관련하여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를 단순하게 대조할 수는 없다.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을 반영하는 완판본 고소설 자료와 신재효의 관소리 사설이 보이는 구어적 성격과, 같은 시기의 『독립신문』이 보이는 문어적인 격식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위의 예는 이 시기에 ‘싫’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어간말 자음의 초성에 유기음화 또는 경음화가 나타나지 않는, 재구조화의 초기 단계를 보이는 ‘실고’형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현대 전북의 하위 지역방언에서 ‘ㄷ’ 불규칙 용언은 ‘듣-’(聽) 하나에만 국한되어 사용된다. 나머지 불규칙 용언의 어간말 자음은 대부분 자음어미 앞에서 ‘ㄹ’으로 재구조화되어 규칙적인 활용으로 전환되었다(최태영 1983; 김규남 1987; 김옥화 2001). 현대 전북방언의 이와 같은 공시적 상태는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 아래와 같이 각각 상이한 발달의 단계로 소급될 수 있다.

- (29) ㄱ. 걷-(步)→걸-: 한번 걸꼬 두 번 걸러(충열,상.8ㄴ),
 거러라 걷는 티도 보자(수절가,상.28ㄴ),
 자라나서 제 발노 걸거든(심청,상.6ㄴ), 금자리 걸듯(성열.193).
 (충열,상.8ㄴ), 거름걸기 조을시고(병오,춘.33ㄴ), 걸는 티도(판,변.532).
 ㄴ. 긴-(汲)→걸-: 물을 썰고 쌀을 쓰러(汲-, 판,심.186), 물도 질고(삼국 3.33ㄴ),
 물을 질다가(충열,상.19ㄴ), 물 질난 종(장경,하.18ㄱ).
 ㄷ. 일컨-(稱)→일갈-: 일갈더니(수절,상.19ㄱ), 스람이 다 일갈더라(판,심.156),
 ㄹ. 견-(編)→절-: 쪼가리를 절쓴지(판,박.330), cf. 덕석을 절을 적의(판,박.330).
 ㄹ. 씨단-(覺)→씨달-: 이제야 씨달난이다(구운,하.50ㄱ), cf. 마암을 씨닷게
 호오니(구운,하.50ㄱ).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에서도 (29) ㄱ의 예는 ‘걷->걸-’(步)의 어간 단일화 이후에 연결되는 자음어미 초성에 수행된 경음화 또는 유기음화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들은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에서 추출된 (27)의 예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발달의 단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19세기 후기 중부방언의 자료에서 관찰되지 않는 (29) ㄴ의 ‘긴->걸-’(汲) 등의 예들은 유추적 확대에 의한 어간의 재구조화 단계만 실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에 나타난 (26) ㄴ에서와 (28) ㄱ의 ‘실+고→실코/실꼬’에서 ‘실코 ∞ 실어’ 또는 ‘실꼬 ∞ 실어’와 같은 공시적 교체의 기저형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 재구조화된 어간말 ‘ㄹ’에 의하여 촉발된 이차적인 유기음화와 경음화 현상까지 모음어미 앞에 출현하는 기저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ㄷ’ 불규칙 용언의 규칙화를 취급한 지역방언의 기술에서 재구조화를 거친 이러한 어간들의 기저형이 단일한 /X_ᄃ/ 또는 /X_ᄃ/으로 설정되어 왔다. 예를 들면, 김옥화(2001:102-103)는 부안방언에서 원래 /X{ㄷ ∞ ㄹ}/와 같은 불규칙 교체를 보유했던 어간들이, ‘듣-’(聽)의 활용형들만 제외하고, 대부분 /X_ᄃ/ 어간으로 재구조화를 수행하여 왔다고 관찰하였다. /짚-/ (汲), /뽕-/ (增), /싫-/ (載), /늙-/ (눈-), /묻-/ (問). 여기서 기저형 /X_ᄃ/는 모음어미 앞에서도 배당되었다. 즉, /짚+어서/→[지러서], /짚+고/→[질꼬], 등등.¹⁸⁾ 그는 이와 같은 활용 형식이 기원

18) 김옥화(2001:102-103)는 부안방언에서 ‘듣-’(聽)은 여전히 불규칙 용언으로 남아 있어서, /드{ㄷ ∞ ㄹ}/와 같은 어간 기저형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매개모음 앞에서 어간말 ‘ㄹ’이 탈락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음어미 앞에서 ‘들-’을 선택하는 방안이 좀 더 일반성을 띤다고 지적하였다.

/들+어라/→[드러라], /들+응개/→[드릉개], /들+으야/→[드르야].

이와 같은 통합적 현상은 원래 ‘ㄷ’ 불규칙 용언의 ‘듣-’(聽)이 15세기 국어 이래로 모음어미 앞에서 수행하였던 음운현상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불규칙 교체형 ‘실-’의 어간말음은 표면상으로 ‘ㄹ’이지만, 여기에 통합되는 모음어미는 형태구조 보존의 원리에 따라서 이 어간을 여전히 폐음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적으로 어간말 /X_ㄹ/를 갖고 있는 '잃-'(失) 등의 어간 부류의 그것과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예시하였다. /잃+어서/→[이러서], /잃+고/→[일코].

그러나 'ㄷ' 불규칙 용언에서 규칙화된 어간말음 'ㄹ'의 'ㅎ'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원래 해당이 없다. 그 이유는 여기에 수행된 어간의 단일화는 자음어미 앞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이다. 자음어미 앞에서 유추적 확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어간 단일화의 기준은 바로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이형태 [X_ㄷ-]인 것이다. 그리고 모음어미 앞에서 등장하는 이형태 [X_ㄷ-]에 통합되는 어미는 형태구조 보존의 원리에 의하여 'ㄷ' 불규칙 용언이었던 단계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화자들이 수행하는 유추적 수평화의 원리에 의해서, 모음어미 앞에서 실현되는 이형태 [X_ㄷ-]가 자음어미 앞으로 확대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X{ㄷ∞ㄷ}-/와 같은 종전의 불규칙 교체가 /X_ㄷ-/로 어간의 단일화를 수행하게 된다. /X_ㄷ-/은 종전에서와 같이 매개모음 어미와 결합한다. 그러나 자음어미 앞에서 새 어간 [X_ㄷ-]의 말음 'ㄷ'이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 이차적으로 유기음화를 촉발시키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불규칙 교체인 /X{ㄷ∞ㄷ}-/의 규칙화 형태는 일단 /X_ㄷ-/이지만, 이것이 자음어미의 초성을 유기음화시킨다는 음운론적 정보를 첨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전혀 해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ㄷ' 불규칙 용언의 규칙화 형태는 사실상 복수 기저형, 즉 /X_ㄹ-/(자음어미 앞)과 /X_ㄷ-/(모음어미 앞)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하면, 전북방언에서 재구조화를 거친 '끓-'(汲) 부류는 기원적으로 어간말 자음군 'ㄹ'을 갖고 있었던 /잃-/ (失) 어간이 모음어미 앞에서 h을 탈락 시키는 자연스러운 음운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¹⁹⁾

'ㄷ' 불규칙 용언이 규칙화되어 일차적으로 단일 어간 /X_ㄷ-/로 확립된 이후에 자음어미 앞에서 일어난 'X_ㄷ→X_ㄹ'와 같은 유기음화 현상은 기원적으로 어간말 '-ㄷ'를 갖고 있었던 일련의 용언의 발달에서 관찰되는 변화와 시대적으로 개략적인 일치를 보인다. 즉, 19세기 후기 지역방언의 여러 자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쓸-(跪)>쑤-', '쑤-(穿)>쑤w->쑤-', '골-(腐)>궤' 등의 변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어간말 '-ㄷ'에 연결된 자음어미의 초성이 유기음화되는 변화의 성격이 음성학적으로 아직 이해되지 않지만, 위의 (28)에서 제시된 '싣-(載)>싣->싣-(자음어미 앞) 부류의 변화가 고립된 것은 아니다.²⁰⁾

- (30) ㄱ. 무릅 쓸다, agenouebler(불한사전 필사본, p.9, 1869년 2월 이전에 완성),
 쓸다:跪 (쓸어안줄-*궤)(1897, 한영자, p.238),
 집에 두 무릅 단정히 쓸고 도학 공부나 흘것이지(독립.1898.6.25),
 cf. 어린 아히들을 쓸여 안치고<독립.1897.710),
 무릅홀 쓸고 괴여 올라가니(턴로력당, 44ㄱ),
 두 무릅 마조 쓸고 아미를 수기리고(수절가,상.23ㄱ),

19) 배주채(1988:99)는 고흥방언에서 'ㄷ' 불규칙 용언에서 규칙용언으로 재구조화를 거친 자음군 어간 'ㄹ'과 'ㄹ'이 모음어미나 매개모음어미와 결합할 때 후음 'ㅎ'과 'ㅇ'은 필수적으로 탈락한다는 음운규칙을 설정한 바 있다.

20) 제주도 방언에서 체언 'ㄷ' 말음 다음에 연결되는 보조사 '-도'의 초성이 유기음화로 전환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ㄱ). 그젠 즈손들토 할 수 엇이(진성기, 『남국의 민담』, 1977:134),

사람들토 출세흔뎡 흐는 말이(상동. 91),

cf. 바룻궤기들이(상동. 87).

(ㄴ). -덜토(-들+도), 『제주어사전』 (1995:132), 물코기∞물궤기(1995:233).

- ㄴ. 두 무릅 정이 쫄코 좌우를 둘러보니(병오,춘.30ㄴ),
 두손 합장 무릅 쫄코 비는 말이(임형택소장 26장본. 박홍보전, 3ㄱ).
- (31) ㄱ. ‘쫄고’: 송곳스로 쫄고 노호로 쫄여 미여라(苗대천, 교린수지 3.16ㄱ),
 송곳스로 쫄고 녹슨으로 쫄여미라(초/재간 교린수지 3.27ㄴ),
 송곳스로 쫄고 녹슨으로 미여라(교정 215).
- ㄴ. ‘쫄코’: 엇더흔 놈이 벽을 쫄코 드리 가서(독립.1897.4.27④),
 담을 쫄코 집을 넘은 즈국도 업고(독립.1898.2.24),
 ‘쫄케’: 싸 속을 잘 쫄케 싱겨논디(독립.1897.6.29②),
 cf. 구멍들을 쫄어(독립.1896.4.18②),
- ㄷ. ‘쫄키’: 담벼락을 쫄키논(관성제군.破壁,17ㄴ),
 쫄렁의 구멍 쫄키(경관 20장본. 흥부전),
 =구멍 쫄키(필사본.26장본. 흥부전),²¹⁾
- ㄹ. ‘쫄쏘’: 쫄가가 중방 미술 쫄쏘 쫄을 도적하야(독립.1897.7.8),
 군역을 쫄쏘(장자백 창본 춘향가, 12ㄴ).
- (32) ㄱ. 卵段 알 콜다(광재물, 介蛤.1ㄱ),
 알이 다 콜고 다만 흔느홀 씨엿는지라(경관본 20장. 흥부전,10ㄱ),
 콜다: kol-ta, kol-E ou kol-a, kon(1880, 한불즈던.194),
- ㄴ. 손독이 올느 다 콜코 흔기 게우 싸노왓네(임형택 소장 필사본 26장본 박홍보전, 21ㄴ)어불스, 이놈 콜아구느. 게란이관디 고랴요(상동.11ㄱ).

위의 용언어간의 경우에도 ‘-ㄹ’ 다음에 연결되는 자음어미의 초성에만 유기음화가 적용되어 ‘쫄-, 쫄-, 쫄-’과 같은 이형태를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유기음화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적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형태 중심의 맞춤법에서 자음어미 앞의 ‘ㄹ’을 모음어미 앞으로도 표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단일한 기저형 ‘ㄹ’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싸르-’(遂)에 어미 ‘-고’가 연결되는 경우에 어 어간이 ‘쌀-’로 축약된 다음에 자음어미의 초성에 유기음화가 일어나는 예가 관찰된다. 비형 뒤를 쌀코(수절가, 하.3ㄱ), 스람 쌀코 히 업는 게 제비로다(판,박.442).²²⁾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오늘날의 전북과 전남방언에 확대되어 있다(이기갑 외 1997:189).

‘ㄷ’ 불규칙 용언이 규칙화되어 자음어미 앞에서 단일화된 어간 ‘Xㄷ-’의 말음 ‘-ㄷ’에 자음어미가 연결되는 경우에 실현되는 초성의 경음화 현상(실-+고→실쏘, 載) 역시 충분한 음성학적 근거를 쉽게 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ㄷ’과 자음어미와의 통합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음화는 동일한 위치에서의 유기음화의 예보다 근대국어 단계의 문헌 자료와, 현대 지역방언의 공시적 현상에서 더 쉽게 관찰되는

21) 김문기 소장 필사본 26장본 <흥부전>은 1901년이 필사연도로 추정. 이 이본의 내용은 경관 20장분을 모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정. 김문기 편 『고전문학정선』(태학사, 1982)에 영인 및 김진영 외 『흥부전 전집』, 2(1990, 박이정 출판사)에 수록되어 있음.

22) ‘물것’(昆蟲)의 형태적 구성에서도 관형사형 ‘물-’ 다음에 경음화와 더불어 유기음화도 실현되어 있다.

(ㄱ). 검위는 날느 다니는 물것과 비스름 혀여(독립.1897.6.17.②),

(ㄴ). 물것 업고 밥 만혀여 모쪽의 쫄흔 썩난 일년중 제일이나(판,퇴.294),

(ㄷ). 一身이 사자흔이 물것 계워 못 견딜쇠(해동가요, 96).

변화이다.

국어사에서 ‘말’(馬) 부류와 같은 특정한 체언에 연결되는 여격형태 ‘-게’는 17세기에서부터 어간말 ‘-르’에 연결되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의 초성이 부분적으로 경음화되어 간다. 즉, ‘말게>말께’.

- (33) ㄱ. 이 말께 실은 저근 모시뵈도(1670.노걸언,상,7ㄴ),
 馬躑了 말께 불피다(1690.역어유,하,23ㄱ),
 불 혈 췌에 다 듯게야 ㄹ 말께 느리니<1765박신해,2,049a>
 官員이 말께 느리거든(1790.몽노중7,13ㄴ),
 살로 뿌아 말께 느리치고(1790.몽노중2,13ㄴ),
 ㄴ. 사람들이 썰매를 말께 메어트고(1889.사민필,18),
 여러 빅냥을 말끼 실니고(1881.한어문전 수준별 학습편 22:16),
 자같은 말께 끼여 제오 허거니(초간 교린수지 3.29ㄱ),
 cf. 마함은 말게 끼어 제어흐논(묘대천 3.16ㄱ),
 열살 된 아들이 말끼 볍혀(1896.독립.11.3),
 ㄹ희가 말끼 치이고(1896.독립.9.8).

또한, 19세기 후기 전라방언 자료에서 복수접미사 ‘-들’의 초성이 어간말 자음 ‘-르’와 연결되는 경우에 경음화가 실현되기 시작한다. 세송의 사람덜뜨 츨심외리 잇난이난(판,퇴.264). 이와 같은 조건에서 적용된 경음화는 현대 전북방언에서 더욱 확대되어 나타난다. 부안 지역어를 기술한 김옥화(2001:29, 2003:189)는 특수조사들의 초성이 어간말 ‘-르’과 통합되어 각각 [선생들-뜨, 애들-뵈고, 사람들-끼다, 조카덜-뵈고] 등에서와 같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예들을 관찰하고, 복수 접미사의 기저형으로 ‘-덜’을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19세기 후기 지역방언 자료에서 어간말 자음이 ‘-르’ 이외에, 다른 공명음의 환경에서도 경음화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예들도 찾을 수 있다.

- (34) ㄱ. 점점 훗터져 알미 업스며 망영씨이 질박흐를 지으미(1881.조군령,4ㄱ),
 ㄴ. 간증은 참이오 그 스사로 말이 참씨물 안 거시(1887.예수성,요한복음.19:35절).

그리하여 소강춘(1983:84-85)은 남원방언의 음운현상을 기술하면서 공명자음 ‘ㄴ, ㄹ, ㅇ, ㄷ’로 끝나는 체언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연결되면 수의적으로 경음화 현상이 실현되는 예들을 추출하였다.²³⁾ 그리고 그는 ‘ㄷ’이 점진적으로 경음화의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3) (ㄱ) /넬:+도/(來日)→[넬:또], /암:말+도/→[암:말또], /시골+도/→[시골또].

(ㄴ) /시방+도/→[시방또], /부평+다가/→[부평따가], /내년+보텨/→[내넌뵈텨], /애:+들+들이/→[애:들뜨리]. (소강춘 1983:85).

7. 논의와 결론 : 현대 지역방언에서 진행 중인 유기음화와 경음화의 해석

ㄱ) 현대 지역방언의 곡용에서 유기음화 현상

1. 닭: 첨미 밋터 황계 **닥카** 꼭교하고 우지마라(21ㄴ, 박순호 소장본 68장 필사본 <춘향가>),
2. 전광현(2003:77-143), “남원지역어의 기초어휘 조사 연구”, <국어사와 방언>2. 월인.

ㄱ. 닭, 닭(鷄)→다클의대키나의다키라구의대키 운다. 103쪽.

<한국방언자료집>(경북 편, 1989:188-189). 영풍--달/달의달기의달걸, 안동--달의다키의달걸, 영양--달키, 상주--달/달의달기/달키, 금릉--달/달의다키, 선산--달의달키, 성주--달키, 칠곡--달의달키의달걸, 경산--달키, 고령--달의대키/다키의다걸, 달성--달의다키, 청도--달키.

<한국방언자료집>(전남 편, 1991:196-197). 승주--달의다키, 광양--달의다클의다키, 고흥--달의다글의대키, 여천--달의다클의대키.

ㄴ. 지붕→지붕에, 지붕→지붕개(124쪽),

(참고) 횡남 지붕개 기와 혼장 씨여젓스니(계일, 사과지남, 173, 504)

둑 집붕개 울오지 못하게 하여라(동상, 25),

집웅에서(동상, 147, 295),

지붕서 락상하야 팔 부러진 목슈를(1890, 한영문법, 언더우드, 278),

집붕글 씻고 구녕을 닦 후의(이수정 역 신약마가전복음서언해, 2:4).

겨울게도 씻시 만히 꿩데다(계일, 사과지남, 28), 겨울게 옷을 못넙엇기에

(계일, 사과지남, 57), 참고. 겨울에 눈 만히 오면(계일 98,19),

<한국방언자료집>(1990, 강원도 편, 66쪽)

철원--지붕개, 고성--지붕게다, 지붕개(횡성, 원성, 명주--지붕그, 원성/정선/삼척-- 지붕기, 지붕걸, 지붕개.

<한국방언자료집>(1993, 경남 편, 71쪽); 지붕+을/-에.

창녕--지붕의지붕걸의지붕개, 울주--지붕의지붕키의지붕개,

의령/김해/양산--지붕의지붕얼의지붕개.

<한국방언자료집>(1993, 경북 편, 76쪽);

경산--지붕의지붕걸의지붕개, 달성--지붕의지붕키의지붕개.

ㄷ. 돌(石)→독→도캐다의도클의도크로(전광현 105쪽),

ㄹ. 흙(土)→흙→호클의호키의호크로(운봉, 129쪽),

참고) 쫄(葛)→칙(125쪽).

끌다(引)→끄시어끌고의끄직따어글→끄코(아영, 132쪽),

다르-(異)→달타, 닳-(132쪽),

혼자(獨)→혼차의 혼자(141쪽). 주머니→주먼치(123쪽).

<한국방언자료집> V, 전라북도 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ㄱ. 흙-이/-을/-에다→전북. 흙: 히키의 히기, 호걸, 호케다가(남원)---164쪽.

전남→흙: 호기의 호케다(나주, 승주, 고흥), 호키의 호클의 호케다가(광양)
호키의 호케(여천)---225쪽.

경북→흙키→ 흙걸의 흙케(청도), 호키의 호걸의 호케(고령), 흙키의 흙걸의 흙케(칠곡),
호키의 호걸의 호케(금릉), 흙걸의 흙케(선산)---214쪽.

경남(1993)→호키의 호걸의 호케(거창, 합천, 창녕, 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양, 함안,
의창,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196쪽.

ㄴ. 닭-이/-을: 전북→ 대키의 다걸(남원),---144쪽.

전남→닭: 다클의 대키(여천), 다글의 대키(고흥), 다클의 다키(광양), 다키(승주).---197쪽.

경북→닭: 달걸의 달기(영풍), 다키의 다걸(안동), 다키(금릉), 달키(성주),
달키의 달걸(칠곡), 달키(경산), 대키의 다키의 다걸(고령). 달키(청도)
---189쪽.

『국한회어』 (1895, 태학사 영인본): 닭기싸우다(鷄鬪)--坤 434,

닭기 화에 올으다, 닭기 화에 올치다(434).

닭기 화에 올으다 鷄栖于特<1895국한회,073>

닭기 화에 올치다 鷄<1895국한회,073>

cf. 닭소래 들니다 鷄鳴遠境<1895국한회,073>24)

ㄷ. 칩-이→치킹갑다(여천, 전남---210쪽)

경북의 경우: 대부분 ‘칠기’(200)

ㄹ. 돌(石): 경북→똥; 돌기라의 돌게(영풍), 돌기의 돌게(문경), 도키(상주), 도키의 도케(금릉), 돌기
라의 돌키의 돌크로(선산), 돌기의 돌게(군위), 도키(고령)---한국방언자료집, 경상북도 편
214쪽,

경남(1993)→돌의 도키의 도케(합천, 진양, 의창),

돌의 도리의 도케(밀양), 한국방언자료집, 경상남도 편, 195쪽.

cf. 무죄허거던 섭들킨 빅키 주옵소서 호고 공중을 흥흥여 옥잠을 썬지니 옥잠이 나려와 섭
들케 박히는지라(필사본 수경옥낭좌전 23ㄴ).25)

<한국방언자료집>(전남 편, 1991:224). 여천--돌:, 도리, 도키의 도레/도:케.

24) 홍윤표(1986, “최초의 국어사전 『국한회어』에 대하여”, <전재호 박사회갑기념 국어학논총>(형설출판사).

“‘닭이’를 ‘닭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동남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닭기 싸우다, 닭기 화에 올치다. 닭기 화에 올으다.”

25) “공동연구 『수경옥낭좌전』에 반영된 방언적 요소에 대하여”, (김영태 외), 5-112. 『가야문화』 제9집. 1992. 영인본 『수경옥낭좌전』을 참조.

ㄴ) 현대 지역방언의 활용에서 유기음화 현상

<한국방언자료집>(전남 편, 1991:259).

- ㄱ. 다르다(興): 영광--달브다, 다르타, 장성--달타, 달븐디, 나주--다르타, 화순--달타, 영암--다르타, 진도/장흥--달타.
 - ㄴ. 끝다(引): 영광/장성/함평/광산/신안/나주/승주(물꼬)/영암/진도/장흥/보성/고흥/완도--끄꼬, 구례/무안--끝꼬(물꼬),
- 참고) 판소리 「춘향가」(조상현의), 『판소리 다섯마당』(뿌리깊은나무, 1982 편집, 한국브리태니커 회사). 물+고=물꼬: 나졸이 분주혈제 방자 겁을 내여 나구 물꼬 나온다(p.48),

참조) other 달웃타,(Korean Speech, Vocabulary, p.92).

<한국방언자료집>(경북 편, 1989);

- 기르+고(生育): 영덕-기루꼬, 영일/군위/성주/경산/선산/경산--질구꼬(276쪽).
- 잇+고(繼): 울진/예천/영양/의성,청송/영덕/선산/군위/영일/칠곡/월성--이스꼬(283쪽),
- 붓+고(注): 영풍/봉화/울진/영덕 등 대부분--북꼬, 의성/청송/월성--북꼬, 청도--버꼬
- 낫+고(癒): 영풍/봉화/문경/예천 등 다수--날꼬, 월성/청도/달성/고령/군위 등등--나산꼬(368쪽).
- 긋+고(劃): 영풍/봉화/문경/예천/영양/월성 등 다수--긋(꺼)꼬, 울진/청송--긋꼬(368쪽).
- 싣+고(載): 영풍/봉화/예천/안동/의성--실꼬, 문경/청송/상주/청송 ---싣(시)꼬
- 듣+고(聽): 경북 전부가 덕꼬(367쪽).
- 묻+고(問): 경북 영풍/예천/안동--물꼬(367쪽). 봉화/울진/문경--묵꼬, ‘물꼬/묵꼬’는 출현하지 않음.

그 반면에, ‘듣+고(學)’와 /살+고(生)의 경우는 경북방언에서 경음화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

<한국방언자료집>(전남 편, 1991);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1979, 평범사, 하야육량저작집 I. <방언어휘>

닭+이=[달키](경북 상주, 311, [닥키](전남-순천/광양/별교/고흥, 경북-김천 외 2개 지역, 경남-합천 외 5개 지역).

흙+이=[헝키](경남-금해/양산/밀양, [헝키](충북-황간, 경북-고령/김천/상주, 경남-합천 외 5개 지역). 316쪽.

<한국방언자료집>(경남 편, 1993); 해당 모음의 변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음.

- 1. (무릅을) 꿇+고→꼴고(거창, 합천, 창녕, 밀양, 함양, 하동), ‘꾸리고’형의 출현이 보통.

- 꿀꼬(울주, 산청), 278쪽.
(구멍을) 뚫-+지→뚫찌(거창, 창녕, 밀양, 울주, 의창, 김해, 양산), 261쪽.
(감기를) 앓-+고→알꼬(합천, 김해, 고성, 통영, 거제), 340쪽.
2. 눅-+지(臥)→누찌(거창, 합천, 함양, 의령, 하동 등 대부분),
→눅찌(창녕, 울주, 산청), 남해는 ‘눅찌’와 ‘누찌’ 양형이 공존. 279쪽.
3. (신을) 신-+고→신고(거창, 합천, 울주, 함양, 진양, 함안, 의창, 김해, 양산, 고성, 남해, 통영, 거제),
→신꼬(창녕, 밀양 외). 280쪽.
신기-어→싱키(거창, 합천, 함양, 의령, 하동),
→싱기(창녕, 진양, 함양, 의창, 김해 등 대부분),
→싱끼(산청),
(옷을) 삶-+고→쌈/삼고(합천, 창녕, 밀양, 울주, 진양, 함안, 의창, 김해, 양산,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230쪽.
젊-+다(靑)→점다(합천, 밀양, 의령, 진양, 함안, 의창, 김해, 양산, 고성, 남해, 통영, 거제). 222쪽.
4. (등을) 굽-+고→글코(밀양, 울주), 276쪽.
굽-+지/-굽-젯다. →글케따(글찌, 창녕),
→글치, 글케따(밀양, 의창),
5. 테리-+고→테꼬(합천, 하동, 김해, 사천, 고성, 남해).
→텔꼬(창녕), 275쪽.
6. 긋-+고(劃)→꺼코(거창, 창녕, 밀양), 274쪽.
7. 끌-+고/-지(引)→끄꼬, 끄찌(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양, 함안, 양산, 통영, 남해),
→끄코, 끄치(거창, 창녕, 밀양),
→끄꼬, 끄치(합천, 사천),
→글꼬, 끄찌(남해), 263쪽.
8. 싣-+고(載)→실코(거창, 하동),
→실꼬(합천, 창녕, 밀양, 울주, 함양, 산청, 의령, 진양, 의창, 고성, 사천),
→시꼬(꾸)(김해, 양산, 거제, 통영, 남해), 252쪽.
9. ‘묻-+고(問)’, ‘듣-+고(聽)’의 경우는 경남방언 조사에서 전부 [무꼬]와 [드꼬], 337

<참고 논저>

- 강신항(1971), “한국어학사”(상), 489-569, 『한국문화사대계』 9. (언어·문학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소.
- 강희숙(1994), “음운변이 및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 고영근(1994), “북한의 한글전용과 문자개혁”, 167-234, 『통일시대의 어문문제』, 길벗.
- 고영근(1997), “중세어의 ‘ㄹ, ㅍ’ 규칙활용론에 대하여”, 731-760, 『국어학연구의 새지평』 (이돈주선생 화갑기념), 태학사.
- 고영근(1999), “중세어에는 과연 ‘ㄹ, ㅍ’ 불규칙활용이 없을까”, 687-715, 『중보판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대 출판부.
- 고영근(1999), 『북한의 언어문화』, 서울대 출판부.
- 고영근(편, 2000), 『북한 및 재외교민의 철자법 집성』, 북한 및 해외교민의 어문자료총서 1, 역락.
- 고영근(2010), “이극로의 어학사상의 위치”, 273-297, 『이극로의 우리말 연구와 민족운동』, 이극로 박사 기념사업회, 선인.
- 곽충구(1994), “계합 내에서의 단일화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 『남천 박갑수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 곽충구(1998), “어의분화에 따른 단어의 형태분화와 음운변화”, 37-68, 『방언』, 국어학강좌 6, 태학사.
- 권시현(2008), “ ‘ㅎ’ 발음용언 어간의 방언간 대응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아(1990), “활용에서의 기저형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94호, 서울대 국어연구회.
- 김경아(1998), “용언어간말 ‘ㅎ’의 교체에 대하여”, 『언어』 23.1. 1-27, 한국언어학회.
- 김경아(2000),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국어학 총서 38, 국어학회.
- 김규남(1986), “부안 지역어의 음운론”,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 김규남(1987), “전북방언의 ‘ㄹ’ 불규칙활용과 재구조화”, 95-124, 『어학』 제18집, 전북대 어학연구소.
- 김두봉(1916), 『조선말본』, 새글집.
- 김두봉(1922), 『김두봉 조선말본』, 상해, 새글집.
- 김민수(1987), “국어 표기법 논쟁사”, 6-14, 『국어생활』, 통권 9호, 여름, 국어연구소.
-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호, 서울대 국어연구회.
- 김성규(1988), “비자동적 교체의 공식적 기술”, 25-44, 『관악어문연구』, 제13집, 서울대 국문과.
- 김영기(1973), ‘Irregular’ verbs in Korean Revisited, 『어학연구』 9-2,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완진(1971), 『국어음운체계의 연구』, 일조각.
-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273-299, 『동아문화』 11.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 김옥화(2001),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옥화(2003), “부안지역어의 특수조사”, 183-205, 『관악어문연구』 제28집.
- 김정우(1994), “음운현상과 비음운론적 정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정현(2005), “『교린수지』의 표기와 음운현상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오(1949), “ㅎ음고”, 44-53, 『조선어연구』, 제1권 2호.
- 김진우(1971/1988), “소위 변격용언의 비변격성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8.9호, 한국언어문학회.
- 김충배(1974), Tensification Revisited, 129-142, 『어학연구』 제10권 2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현(2001),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어간 재구조화”, 85-114, 『국어학』 37호, 국어학회.
- 김현(2003), “활용상에 보이는 형태음운론적 변화의 원인과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상(1927), 『울이글들』, <역대한국문법대계>, 제1부 7책, 탑출판사.
- 김차균(1971), “변친용언 연구”, 『한글』, 149호, 한글학회.
- 박숙희(2004), “어간 재구조화의 두 요인”, 135-169, 『한글』, 265호, 한글학회.
- 박용후(1988), 『제주방언연구』 (고찰편), 과학사.
- 백은아(2009), “전북 방언 [?]의 음운론적 처리”, 61-79, 『한국 언어문학』 제67집.
- 배주채(1988), 『고흥방언 음운론』, 국어학총서 32, 국어학회.
- 배주채(1989/2008), “음절말 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국어연구』, 91, 『국어 음운론의 체계화』에 재수록, 57-153, 한국문화사.
- 소강춘(1983), “남원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송철의(1991), “국어 음운현상에 있어서 체언과 용언”,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송철의(2008), 『한국어 형태음운론적 연구』, 태학사.

신승용(2002), “표시층위 재론”, 『어문학』, 75집, 한국어문학회.

신승용(2003), 『음운 변화의 원인과 과정』, 국어학 총서 43, 국어학회, 태학사.

엄태수(1999), 『한국어의 음운규칙 연구』, 국학자료원.

연구부(1950), “새자모 ㅉ, ㅊ, ㅌ,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1에 대하여”, 31-54, 『조선어연구』, 제2권 2호.

오종갑(1997), “어간 ‘줍-’의 방언분화와 표준어의 문제”, 1-32, 『인문연구』 제18집 2호,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유필재(2001), “서울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극로(1930), “조선말 소리갈”, 『新生』 3-9, 『역대』 3-23에 재수록, 669-687.

이극로(1932.9), “조선말의 홑소리”, 『한글』 제1권 4호, 조선어학회.

이극로(1932.10), “훈민정음의 독특한 성음 관찰”, 『한글』 제1권 5호, 조선어학회.

이극로(1934), “조선 말소리(朝鮮語 聲音)”, 156-160, 『한글』 제1권 15호, 조선어학회.

이극로(1936), “訓民正音과 龍飛御天歌”, 『신동아』 6-4, 『역대』 3-23에 재수록, 669-687.

이극로(1947), 『실험도해 조선어음성학』, 아문각.

이극로(1949), “조선어 신철자법의 기본 원칙”, 124-126, 『조선어연구』, 제1권 8호.

이기문(1963), 『국어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 총서 18, 한국연구원.

이기문(1972), 『국어 음운사 연구』, 한국문화연구 총서 13, 한국문화연구소.

이병근(1979), “음운규칙과 비음운론적 제약”, 59-95. 『국어학』, 제3집. 『음운현상에 있어서의 제약』에 재수록, 국어학 연구선서 8. 탑출판사.

이승재(1980), “구례지역어의 음운체계”, 『국어연구』 45, 서울대 국어연구회.

이승재(1990), “방언 음운론”, 49-78,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국어국문학회.

이익섭(1972), “강릉방언의 형태음소론적 고찰”, 99-119, 『진단학보』 34, 진단학회.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 연구』, 한국문화연구 총서 28, 서울대 출판부.

이준식(2008), “최현배와 김두봉”, 41-67, 『역사비평』 통권 82호.

이진호(1997), “국어어간말 자음군과 관련 현상에 대한 통시음운론”, 『국어연구』, 147, 서울대 국어연구회.

이진호(2003), “국어 ㅎ-말음 어간의 음운론”, 167-195, 『국어국문학』, 133. 국어국문학회.

이진호(2008. 7), 『통시적 음운변화의 공시적 기술』, 삼경문화사.

이진호(2008), “일제 시대의 국어 음운론 연구”, 93-126, 『한국어학』, 40집.

이진호(2008), 『국어 음운교육 변천사』, 박이정.

이혁화(2005),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탁(1928/1958), “우리 語音學”, 352-381, 『국어학 논고』, 정음사.

이탁(1932), “ㅎ △ ◇를 다시 쓰자”, 161-167, 『한글』 제1권 4호, 조선어학회.

이필영(1992), “김두봉의 국어연구에 대하여”, 『주시경학보』, 10.

임석규(2004), “음운규칙 간의 위계 검토”, 301-327, 『관악어문연구』, 29, 서울대 국문과.

임석규(2007), “경북북부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몽수(1949), “조선어 음운론(1)”, 11-36, 『조선어 연구』, 제1권 3호.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 총서 25, 국어학회, 태학사.

정승철(1996), “제주도 방언 ‘ㅎ’ 말음 용언어간의 통사론”,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정영호(2009), “국어용언어간의 기저형 ‘X(C)ㅎ-/X(C)ㅎ-’”, 『국어국문학』, 151.

정인호(1995), “화순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34호, 서울대 국어연구회.

정인호(1997), “ㄴ-불규칙 용언어간의 변화에 대하여”, 145-178, 『애산학보』, 20.

정인호(2004), “‘자음-ㅎ’ 連鎖에서의 음변화”, 21-41, 『한국문화』 34.

정윤자(1990), “근대국어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음소론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 철(1991), 『경북 중부지역어의 연구』, 경북대 출판부.

조규태(2004), “성문파열음의 음소 설정 가능성에 대하여”, 111-126, 『어문학』, 제 85집.

- 조남호(2010), “이극로의 학문세계”, 139-166, 『이극로의 우리말 연구와 민족운동』, 이극로박사 기념사업회, 선인.
- 조선어문연구회(1949), “조선어 철자법의 기초”, 『조선어연구』, 제1권 5호.
- 조선어문연구회(편, 1949), 『조선어 문법』, 평양.
- 주갑동(2005), 『전라도 방언사전』, 수필과비평사.
- 최명옥(1978), “동남방언의 세 음소”, 『국어학』 7, 국어학회.
- 최명옥(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 출판부.
- 최명옥(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14, 국어학회.
- 최명옥(1993),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성곡논총』, 24.
- 최명옥(1995), “경남 합천지역어의 음운론”, 『대동문화연구』 3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 최명옥(1997), “국어의 통시음운론 개관”, 363-385. 『국어사 연구』, 국어사 연구회, 태학사.
- 최명옥(1998), 『한국어 방언연구의 실제』, 태학사.
-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 최명옥(2008), 『현대 한국어의 공시형태론』, 서울대 출판부.
- 최전승(1986),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한신문화사.
- 최전승(2004), 『한국어 방언의 공시적 구조와 통시적 변화』, 역락.
- 최전승(2010), “역사적 방언자료와 현대 지역방언에 출현하고 있는 ‘ㅎ’ 첨가의 상징성과 실제성”, 35-63, <2010년도 전 북대학교 구어연구회 여름 세미나 발표집>. 전북대 국문과.
-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째매』, 연희전문학교 출판부. <대계> 제1부 17책에 수록.
- 최현배(1932), “새 받침에 관한 제 문제의 해결과 실예의 총람”, 120-132, 『한글』 제1권 3호, 조선어학회.
- 최태영(1983), 『방언 음운론』, 형설출판사.
- 하동호(편, 1986), 『한글 논쟁 논문집』 (상), <역대한국문법대계> 3-22, 탑출판사.
- 하동호(편, 1986), 『한글 논쟁 논문집』 (하), <역대한국문법대계> 3-23, 탑출판사.
- 한성우(1996), “당진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41호, 서울대 국어연구회.
- 한영균(1991), “불규칙활용”,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허웅(1964), 『개소신관 국어 음운학』, 정음사.
- 허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허웅(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홍기문(1927), 『조선문전 요강』 (현대평론 1권 1호-5호), 『역대』 3-23에 재수록, 669-687.
- 황국정(2001), “김희상(1909, 1911, 1927) 다시 읽기”, 401-416, 『형태론』 3권 2호.
- 古加 聰(2001), “김두봉의 “소리갈”과 일본 음성학”, 359-367, 『형태론』 3권 2호.
- 熊谷 明泰(2001), “1940년대 말기 북한에서의 형태주의 표기”, 575-603, 『한일 어문학논총』 (梅田博之 교수 고회기념), 태학사.
- 小倉進平(1923), “國語及 朝鮮語 발음개설”, 1-152, 小倉進平博士 著作集(三), 경도대학 국문학회.

Campbell, L.(2000), *Historical Linguistics*, The MIT Press.

Chao, Y. R.(1934/1968), Non-uniqueness of Phonemic Solution of Phonetic Systems, 38-54, in *Readings in Linguistics*, 1. Edited by M. Joos, The Univ. of Chicago Press.

Hock, Hans, H.(1996), *Language History,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Relationship*, Mouton de Gruyter.

Hopper, Joan, B.(1976), *An Introduction to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Academic Press.

Hopper, Joan, B.(1979), Substantive Principles in Natural Generative Phonology, 106-125, in *Current Approaches to Phonological Theory*, edited by D. A. Dinnsen, Indiana Univ. Press.

Ladefoged, P & I. Maddieson(1996),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s*, Blackwell Publishers.

Martin, E. Samuel(1954), *Korean Morphophonemics*,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Martin, E. Samuel(1992), *A Reference Grammar of Korean*(한국어문법총람), Charles E. Tuttle Company.

- Martin, E. Samuel(1996), *Consonant Lenition in Korean and the Macro-Altaic Question*, Center for Korean Studies Monograph 19. Univ. of Hawai'i Press.
- Phillips, Betty S.(2006), *Word Frequency and Lexical Diffusion*, Palgrave, Macmillan.
- Skousen, R.(1975), *Substantive Evidence in Phonology*, Series Minor 217, Moutons.
- Trask, R. L.(2000), *The Dictionary of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Edinburg Univ. Press.
- Vennemann, T.(1974), *Restructuring*, 137-156, *Lingua* 33.